

학생수 40년 전 4만여명 → 4000여명으로 '1/10 토막'

장흥 교육시스템 붕괴 위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시급

장흥지역 초·중·고 학생수가 40년 동안 4만여명에서 4000여명으로 급감하면서 지역교육 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19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장흥군이 밝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5년에 장흥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3만 5600여명이었으나 올 3월 말 현재 4550여명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지역 10년 주기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지난 70년대 3만~4만여명에서 80년대는 2만여명으로, 또다시

90년에 1만8727명, 2000년 894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학생 수는 5000명을 간신히 넘어 5158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는 지난 70년대 후반 정부 출산율 억제정책과 함께 탈이농현상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 명문고나 특성화고 육성 및 유치 실패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흥 관내 학교 통폐합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학교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 84년 유치 보림분교장이 폐교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06년 명덕노룡 분교장까지 모두 18개교 3분교장이 통폐합됐다. 현재 장흥지역

에는 유치원 17개(371명), 초등학교 15개교(1815명), 중학교 9개교(1263명), 고등학교 4개교(1114명)가 존재하고 있다.

장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이 지역미래의 희망인데 학생수 감소로 지역발전은 물론 농어촌 교육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흥군 인구는 지난 1966년 14만400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올 6월말 현재 4만 1749명으로 감소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부장



거문교 공사 한창

465억원이 투입돼 내년 11월 완공예정인 거문교의 주탑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와 서도를 잇는 거문교는 길이 530m, 폭 11.7m, 높이 63.5m의 사장교 형태로,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곡성군 친환경 농산물 서울 금천구 아파트에 공급한다

도·농상생 교류협약 체결

곡성군과 (사)서울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금천구지회는 지난 17일 기차마을에서 곡성군수,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 회원, 관계자 및 농가 등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교류협약을 통해 곡성군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유통하고, 서울시 금천구 아파트연합회는 곡성군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도·농 상생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금천구 아파트연합회 회원



들은 MOU 체결 후 관내 자연농업 제조시설견학,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및 과수농가를 방문하는 등 캠퍼를 통해 직접 농산물 생산과정을 지켜봤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곡성군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전남 섬에 관광객 몰린다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효과
여수 금오도·신안 홍도 등
올 523만여명·1년새 15% 늘어

전남도가 섬 관광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운조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7월 말까지 523만2000명이 전남의 섬을 찾았다. 이는 월 평균 74만7000명으로 지난해 한달 평균(64만 9000명)보다 15% 늘어난 것이다.

항로별로는 여수 금오도 항로가 지난해보다 57.1% 늘어난 4만

5527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신안 홍도는 31.7%가 늘어난 7만824명이었다.

여기에 여름 피서철인 8월 방문객까지 감안하면 섬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섬 방문객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사업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크게 개선된데다 2011년부터 시작한 ‘다도해 명소화사업’으로 섬의 가치가

제조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7개 시군 40개 섬을 대상으로 15개의 주제를 정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2년까지 진도 관매도 음악의 섬, 완도 소안도 어촌체험의 섬, 고흥 시호도 원시의 섬, 영광 송이도 휴양의 섬 등 11개 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3년에도 여수 상하화도 꽃의 섬, 진도 조도 전망의 섬 등 7개 섬을 조성 중이다.

다도해 명소화사업은 다도해 섬의 아름다운 풍광과 독특한 문화를 관광상품화해 주제와 브랜드가 있는 여행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12년까지 24개 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2000여명이 여행에 참여했다. 올해도 상반기 신안 안좌도를 포함해 4개 섬을 다녀왔으며 9월부터 완도 청산도, 여수 금오도, 진도 조도를 여행할 예정이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중국인 해외 골프관광객을 잡아라”

전남도, 적극 유치 나서

전남도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중국인 해외 골프관광객 유치를 나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일 중국 골프 관련 언론인, 북경지역 골프동호회 회장단, 여행사 등 관계자 20여 명을 초청해 사전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답사는 전남도의 골프 기반시설을 중국에 홍보해 전남을 경쟁력 있는 골프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골프라운딩, 경도골프&리조트 및

영양 F1경주장 방문, 낙안읍성 등 관광지 방문 등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22일에 경도골프&리조트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전남은 다양한 형태의 명품골프장, 다채로운 남도음식, 가까운 거리 등 좋은 여건을 갖췄으나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아 사전답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골프장, 여행사 등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군, 농정 공무원들 대상 농산물상품화 아이디어 모집

장성군이 공무원의 실용적이고 색다른 아이디어 발굴로 농특산물 부가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진에 나선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분청과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상품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농특산물의 홍보활동을 극대화하고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특색사업, 시장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화 아이디어(1차 원물의 상품화, 혼합세트, 전처리상품, 가공상품) 등이다. /장성=김용기기자 yongho@

지리산 자락에 ‘구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마산면 화엄지구 100억 들여 2015년까지 조성 백두대간 문화·역사·생태자원 홍보·체험하게

전남도는 지리산 노고단 자락인 구례군 마산면 화엄지구에 2015년까지 ‘구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2만 여㎡의 면적에 100억원(국비 52억·지방비 48억)을 들여 백두대간 시점이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부터 여원재까지 백두대간의 문화·

역사·생태자원을 교육·홍보하고 국민들이 백두대간을 직접 체험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화엄지구는 지리산둘레길과 화엄사 등 지역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특구지역으로 관광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역만의 특화된 생태교육장 조성을 위해 최근 산림청·구례군 관계자와 자연생태·경관·건축 및 관광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생태교육장이 지역민에게 보탬이 되고 관광객을 보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컨셉 설정, 체험과 활동을 겸한 교육, 지리산·화엄사·운천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

을 추진 방향 설정과 설계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세계 최초의 구역형 보호지역으로 총 길이 1400km로 백두산 정근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지역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화엄사 등 관광자원과 연계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조성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